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이민식 · 김종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부부간의 결혼적응도를 측정하는 Dyadic Adjustment Scale(Spanier, 1976)의 한국판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로서 전체 피검자 136명(정상집단=108, 불화집단=28)을 대상으로 척도의 내적일치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DAS의 내적일치도는 .76에서 .95 사이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32개 문항과 전체 척도 및 4개 하위척도에서 정상집단과 불화집단의 평균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준거관련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원래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는 차이를 나타내 척도를 구성하는 이론적 구인을 적절하게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본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라는 개념은 가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자주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panier & Filsinger, 1983). 1929년 미국의 Hamilton이 13개의 문항을 통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던 것을 효시로 하여 그 후 여러 연구자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결혼적응도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Bernard(1933), Burgess와 Cottrell(1939), Terman(1938), Burgess와 Wallin(1953)과 같은 연구자들이 결혼적응

도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50년대에 들어서면서 Harvey Locke와 그의 동료들의 활발한 연구 성과로 인해 이 분야의 연구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Locke와 Wallace(1959)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ocke-Wallace 결혼적응 척도(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척도들과는 달리 척도 제작과 측정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최초의 척도였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변별력이 우수하여 이후 20여년 이상 전반적인 결혼적응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40년대와 50년대 이후 결혼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Locke-Wallace의 척도를 비롯한 기존의 척도들은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결혼적용(marital adjustment)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요인과 용어들(예, 결혼만족도, 행복, 균형, 통합, 일치도, 응집, 갈등, 상호작용 등등)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척도들은 이와 같은 이론적 발전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60-70년대의 다양한 이론적 개념의 출현은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분야의 왕성한 발전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중복되고 모호한 개념들이 지나치게 난무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Lively, 1969).

이런 상황에서 Spanier와 그의 동료들은 결혼적용을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그중 하나가 부부적용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이하 DAS로 표기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Spanier & Cole, 1976). DAS는 결혼한 부부 또는 결혼하지 않은 쌍(동거, 연인 등)을 막론하고 남녀 두 사람간의 적용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5-1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다. 그러면서도, 조작적으로 정의된 이론적 구인을 토대로 척도 제작과 측정 기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정된 도구로 알려져 있다. Spanier와 Cole(1976)은 DAS를 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여 결혼적용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결혼적용은 (1)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2) 부부 사이의 긴장과 개인적 불안, (3) 결혼만족도, (4) 부부간의 응집도, (5) 결혼 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 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 즉, Spanier는 결혼적용이라는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상태(state)’를 의미하는 적용적 혹은 부적용적 부부 관계라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적용과 부적용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횡단적 상태(즉 degree)를 나타내는 것이며, 종단적으로는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결혼적용을 측정하는 척도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적용적 혹은 부적용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기 보다 횡단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부부관계 적용의 정도(degree)를 측정하면서 종단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점들의 적용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양적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들은 기존에 개발된 여러 가지 측정 도구에서 사용된 문항과 자신들이 스스로 고안한 문항 등 총 30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한 개념을 토대로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여 200개의 문항을 선별하였고, 이 문항들을 218명의 기혼자들과 최근 이혼한 94명의 피검자 등 총 312명에게 실시한 후 두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해 주는 40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32개의 문항이 남게 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32개의 문항들은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은 (1) 의견 일치(Dyadic Consensus: 부부관계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의 정도), (2) 응집력(Dyadic Cohesion: 부부가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 (3) 관계에 대한 만족(Dyadic Satisfaction: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정도), (4)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애정 표현과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최초로 Spanier가 정의한 개념 중에서 ‘결혼생활의 불일치에서 오는 곤란’과 ‘부부간의 긴장과 개인적 불안’ 등의 요인은 제외되었으나 의견일치, 응집력, 관계에 대한 만족 등의 요인은 최초로 정의한 개념과 일치하였으며, 여기에 애정표현이라는 요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비록 이 도구가 부부관계의 특정한 문제 영역을 심도 있게 측정하거나 실제 행동을 예언하는 면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는 있지만(Lewis, Filsinger, Coger, & McAvoy, 1981), 전반

적인 결혼적응도를 평가하고 부적응 집단을 변별하는 데는 그 효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Margolin, 1978). 또한, 최초로 이 척도가 제작된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000여편 이상의 연구 논문에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척도가 오늘날 이 분야에서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 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Spanier, 1988).

최근에 이르러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부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이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대학원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 논문은 총 60여 편(그중 박사학위 논문은 4편)으로 주로 교육학, 사회사업학, 가정학 분야의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측정 도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이인수(1986)의 석사 논문 단 1편에 불과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국내에는 결혼적응에 대한 측정도구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심리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 분야에서 결혼 적응과 관련된 임상적, 이론적 활용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의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DAS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판 부부적응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표준화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예비 검증하고 제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방법

대상

본 예비연구의 대상자들은 특별한 원칙 없이 아동놀이 치료 센터, 청소년 지도자 연맹, 시립 가족 상담소, 서울대 병원, 종교단체, 일반 기업체 등 표집하기

쉬운 경로를 통하여 임의로 표집한 피검자들이다. 최초 4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그중 136명의 피검자들로부터 자료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34%),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기혼 남녀들로 구성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중 시립 가족 상담소와 서울대 병원 정신과를 방문한 대상자들 중에서 이혼 및 부부간의 불화(discord)를 주소로 방문한 28명의 피검자들을 부부 불화집단으로 구분하여 타당도 검증시 집단 비교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 성	정상집단 (N=108)	불화집단 (N=28)	계 (N=136)
남성(명)	52	9	61
여성(명)	56	19	75
평균연령	37.9(8.8)	40.5(9.9)	38.5(9.1)
결혼연한	10.9(8.7)	13.6(9.0)	11.6(8.8)
결혼당시 연령평균	27.9(2.6)	26.9(3.8)	27.1(2.9)
자녀 수	1.8(1.0)	1.9(0.9)	1.8(0.9)
학 력(%)			
대학원졸	18.5	21.4	19.1
대졸	59.3	46.4	56.6
전문대졸	6.5	7.1	6.6
고졸	14.8	25.0	16.9
중졸이하	0.9	0.0	0.7
종 교(%)			
기독교	26.9	32.1	27.9
카톨릭	23.1	28.6	24.3
불교	12.0	10.7	11.8
기타	0.9	0.0	0.7
무종교	37.0	28.6	35.3

()안은 표준편차

도구

본 예비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Spanier(1976)가 제작한 Dyadic Adjustment Scale(DAS)을 우리말로 번안한 한국판 '부부 적응 척도'이다. 한국판 DAS는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고 토론을 거쳐 우리말 표현에 가깝게 문장을 다듬어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가중치가 다른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

에 따라 0에서 1 혹은 0에서 6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DAS에서 산출되는 점수는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의 하위 척도 점수들로서 각 척도들의 명칭과 이론적인 점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Total DAS); 0-151, 일치도(Dyadic Consensus); 0-65, 응집도(Dyadic Cohesion); 0-24, 만족도(Dyadic Satisfaction); 0-50,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0-12.

자료 수집

연구자가 선정한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의뢰하여 각 개인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피검자의 편의에 따라 자택이나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8월 15일 까지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5.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로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통해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예비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척도 점수와 각 문항 및 하위척도 점수간의 상관계수

전체 척도 점수인 결혼적응도 점수와 32개 문항 및 4개 하위척도 점수간의 상관 계수가 표 2에 제시되

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전체 척도 점수인 결혼적응도와 32개 문항간에 $p < .001$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척도 점수와 4개 하위척도 간의 상관계수 및 각 하위척도들 간의 상호 상관계수도 $p < .001$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전체 척도 점수와 각 문항 및 하위척도와의 상관

문항	전체점수(결혼적응도)			
01	.5242			
02	.6058			
03	.4149			
04	.7091			
05	.5809			
06	.7109			
07	.6138			
08	.7157			
09	.5408			
10	.7042			
11	.6153			
12	.7298			
13	.6735			
14	.7045			
15	.6575			
16	.7027			
17	.5239			
18	.6358			
19	.6250			
20	.6508			
21	.5092			
22	.6602			
23	.5223			
24	.6455			
25	.6988			
26	.6832			
27	.6917			
28	.6842			
29	.4968			
30	.6581			
31	.7905			
32	.5785			
하위척도	일치도	응집도	만족도	
일치도	.9313			
응집도	.8182	.6661		
만족도	.9115	.7770	.6331	
애정표현	.8230	.6971	.6537	.7483

모든 상관 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본 예비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척도 점수(결혼적용도)와 4개 하위 척도 점수들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미국의 이전 연구에서 산출된 자료와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 구해진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미국에서 이전에 실시한 두 연구의 내적일치도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한국판 DAS의 전체 척도와 각 하위 척도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내적일치도

	문항수	본연구	Spanier (1976)	Carey 등 (1993)
일 치 도	13	.89	.90	.91
응 집 도	5	.89	.86	.83
만 족 도	10	.87	.94	.87
애 정 표 현	4	.76	.73	.70
결혼적용도	32	.95	.96	.95

성별에 따른 척도 점수의 차이

본래 피검자 특성이 척도 점수의 변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의한

표 4. 성별에 따른 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남 (N=61)	여 (N=75)	t (df=134)
일 치 도	45.3(5.2)	43.9(9.7)	.96
응 집 도	14.1(4.3)	13.5(4.9)	.78
만 족 도	36.9(5.0)	34.8(7.5)	1.91
애 정 표 현	9.0(1.8)	8.5(2.2)	1.37
결혼적용도	105.4(13.9)	100.8(22.2)	1.40

()안은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본 연구의 표본수가 적고 표집된 피검자들이 대부분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

단이어서 이와같은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하위집단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척도 점수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4).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척도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거관련타당도

한국판 DAS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예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피검자를 정상집단과 불화집단으로 나누고 전체 32개 문항과 4개 하위척도 점수 및 결혼적용도 점수의 평균에 대한 t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집에서 정상집단(N=108)과 불화집단(N=28)의 표본수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척도의 총점인 결혼적용도 점수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변산이 이질적이어서(Levene's test: $F=20.48, p < .001$) 적절한 통계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였다(표 5).

표 5. 집단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정상집단 (N=108)	불화집단 (N=28)	전 체 (N=136)
일 치 도	47.0(4.7)	35.1(10.8)	44.6(8.0)
응 집 도	15.1(3.8)	8.5(4.3)	13.8(4.7)
만 족 도	38.2(3.8)	26.4(6.8)	35.8(6.6)
애 정 표 현	9.4(1.3)	6.1(2.3)	8.7(2.1)
결혼적용도	109.8(10.4)	76.2(21.2)	102.9(19.0)

()안은 표준편차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상집단 108명 중 28명을 무선으로 추출하여 두 집단의 표본수를 동일하게 만든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무선 추출한 정상집단 28명의 피검자와 불화집단의 피검자들 간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남녀 구성 비율, 학력, 종교, 결혼연한, 자녀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있어 비교적 유사한 집단으로서 부부 관계의 불화 유무 이외에 다른 변인

이 척도 점수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DAS의 32개 문항 점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평균을 *t*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p < .05$ 내지 $P < .001$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판 DAS의 모든 문항은 정상집단과 부부 불화를 호소하는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척도 점수와 4개 하위척도 점수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6).

표 6. 정상집단과 불화집단의 척도별 평균

	정상집단 (N=28)	불화집단 (N=28)	<i>t</i> (df=54)
일 치 도	47.1(4.0)	35.1(10.8)	-5.49***
응 집 도	13.9(3.5)	8.5(4.3)	-5.16***
만 족 도	37.3(4.3)	26.4(6.8)	-7.21***
애 정 표 현	9.0(2.3)	6.1(2.3)	-5.23***
결혼적응도	107.3(9.8)	76.2(21.2)	-7.04***

()안은 표준편차, *** : $p < .00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판 DAS의 전체 척도와 각 하위척도들은 부부간의 불화를 호소하는 집단과 정상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고 있다. 즉, 부부간의 불화를 호소하는 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해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DA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한국판 DAS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32개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채택하였다. 최종 요인 구조를 얻기 위한 회전 방식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델타=0) 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부하량 .30 이상인 문항만을 채택하였다.

1차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총 변량의 67.4%였다. 그러나, 1차 요인 분석에서는 제 1요인이 40.9%의 설명 변량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항이 제 1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다른 요인들에는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소수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의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요인 명칭을 붙이기 곤란하였다. 따라서, 추출되는 요인의 수를 4개로 제한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을 보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4개의 요인들은 Spanier(1976)가 추출하여 척도제작의 기초로 삼았던 4개의 요인들과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제 1요인은 주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애정 표현과 관련된 문항들로 묶여있어 Spanier의 요인 중 ‘관계에 대한 만족 요인’과 ‘애정 표현’ 요인이 혼합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 2요인과 제 3요인은 일부 문항이 이탈되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Spanier(1976)의 요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 2요인은 응집도 하위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요인은 주로 일치도 하위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제 4요인의 경우에는 Spanier(1976)의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주로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이나 다툼 등 부부간의 불화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울러 관습, 생활철학,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서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함께 묶여있는 양상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판 DAS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로서 실시되었다. 총 136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본 연구가 지닌 문제점과 향후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먼저 내적일치도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 7.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해당 하위척도[Spanier(1976)의 요인구조] 및 문항의 내용	Communality	요인 부하량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01 DC: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도	.29223			-.40620	
02 DC:	오락에 대한 의견일치도	.62890			-.80725	
03 DC:	종교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도	.17988			-.35212	
04 AE:	애정 표현에 대한 의견일치도	.61235	.64913			
05 DC:	친구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도	.37288			-.31987	
06 AE:	성관계에 대한 의견일치도	.54937	.43812			
07 DC:	관습에 대한 의견일치도	.53848			-.34122	-.52989
08 DC:	생활철학에 대한 의견일치도	.61068	.33002			-.47955
09 DC: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일치도	.38252			-.34930	-.33815
10 DC:	중요한 일이나 목표에 대한 일치도	.50972			-.31194	
11 DC:	함께 지내는 시간의 길이	.37366				
12 DC:	중요한 결정 내리기에 대한 일치도	.53826	.40272			
13 DC:	가사돌보기에 대한 의견일치도	.42370				
14 DC:	여가 시간의 취미나 활동	.79390			-.87254	
15 DC:	직업결정에 대한 일치도	.41829	.35245			
16 DS: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고려	.50222				-.38239
17 DS:	싸우고 난 후 집을 나가기	.43095				-.53695
18 DS:	관계가 원만할 것이라는 기대	.45854	.57107			
19 DS:	배우자에 대한 신뢰	.46629	.58478			
20 DS:	결혼한 것에 대한 후회	.45958	.50535			
21 DS:	말다툼	.38076				-.50236
22 DS:	상대의 신경을 건드리기	.50035				-.44546
23 DS:	키스의 빈도	.43891	.63403			
24 DH:	여가나 취미를 함께하는 빈도	.60658	.33326		-.46773	.32334
25 DH:	활기있는 의견 교환	.67333		-.70065		
26 DH:	함께 웃기	.55997	.44563	-.44133		
27 DH:	신중하게 의논하기	.88755		-.93833		
28 DH:	어떤 계획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84012		-.88615		
29 AE:	성관계에 대한 싫증	.35425	.61897			
30 AE:	애정 표현의 부족	.51395	.57250			
31 DS: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가	.66561	.56594			
32 DS: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34725	.45980			
설명변량			38.2%	5.7%	3.8%	3.5%
총 설명변량 = 51%						

요인간 상관계수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1.00000			
-.50418	1.00000		
-.55252	.42360	1.00000	
-.41110	.28143	.37582	1.00000

DC=일치도(Dyadic Consensus), DH=응집도(Dyadic Cohesion), DS=만족도(Dyadic Satisfaction), AE=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한국판 DAS의 전체 척도와 4개 하위척도의 문항 내 적일치도가 .76에서 .95사이로서 기존에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적일치도만으로는 본 척도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DAS의 기본 가정인 결혼적응도의 종단적 비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Carey 등(1993)이 2주 간격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에서 .87로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DAS의 각 척도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만으로 피검자 특성 변인이 척도점수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이어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각 척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표본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집을 정상집단과 불화집단으로 구분하여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과 척도 점수들이 정상집단과 불화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어 한국판 DAS의 준거관련타당도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집단의 구분과 관련해 논의되어야 할 점은 Spanier(1976)의 연구에서는 기혼집단과 이혼집단을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혼집단은 포함되지 않았고 부부간의 불화가 없다고 보고하는 정상집단과 부부간의 불화를 호소하는 불화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불화집단의 경우는 시립가정상담소에 이혼이나 부부간의 불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와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부부간의 불화 문제를 주소로 방문한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

혼의 파경을 맞이하였다는 행동적인 준거가 마련되지 않은 집단이지만,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부부간에 명백한 갈등과 불화가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준거관련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Spanier(1976)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DAS의 본래 목적이 기혼 부부 혹은 동거중인 쌍을 대상으로 결혼적응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을 위해 반드시 기혼 대 이혼집단의 비교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결혼 적응이라는 개념이 결국 부부 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예측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때 앞으로는 명백한 외적 준거(예를 들어, 별거나 이혼)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집단간의 표본수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표본수의 차이가 커지면, 집단의 변산이 이질적인 가능성이 많아져 통계치의 해석이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표집을 통해 표본수를 동일하게 통제하고 각 문항과 척도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적인 문제점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전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었다. 앞으로는 두집단의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다음에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구조가 Spanier(1976)의 요인구조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시 정상 집단과 불화 집단간의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 점수의 평균치의 차이를 검증할 때 Spanier(1976)가 제시한 하위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하위척도에 포함될 문항들이 Spanier(1976)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본격적인 척도 개발 이전에 Spanier가 제시한 하위척도를 우리 나라 집단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비교해 보려는 예비 연구의 성질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이 그 나름대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엄

연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Spanier(1976)가 제시한 하위척도를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요인분석에서 논하게 될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판 DAS의 요인구조를 철저히 분석하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고무적인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혼적용도 점수의 정상 집단 평균과 불화집단 평균이 각각 109.8과 76.2로서 Spanier(1976)의 연구에서 얻어진 기혼집단과 이혼집단의 평균(114.8과 70.7)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Spanier(1976) 이후의 다른 연구자들이 정상 기혼자 집단을 통해 구한 평균점수가 109.5에서 121.4의 분포를 이루는 것을 보면(Spanier & Filsinger, 1983), 본 연구에서 얻어진 집단별 평균 점수가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한국판 DAS가 결혼적용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비교적 안정된 도구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인타당도의 검증에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차 분석에서 7개에 달하는 여러 개의 요인이 산출되고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없어 2차 분석에서는 요인 수를 제한하여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 구조는 Spanier(1976)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 Spanier(1976)가 추출한 4개의 요인은 일치도, 응집도, 만족도, 애정표현 등이었으며, 이러한 요인구조는 DAS를 제작하는데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4개의 요인은 Spanier와 Thompson(1982)이 새로운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검증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DAS는 상당히 안정된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본래의 요인구조와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 본 연구의 표본수가 적어 안정된 요인구조를 산출하는데 실패했을 가능성

이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표본의 수가 문항수의 3 내지 5배수 정도면 요인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크면 클 수록 안정된 요인구조를 산출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보완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산출된 요인구조가 실제로 미국과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출한 4개의 요인 중 제 4요인의 문항 내용들은 우리 나라의 경우 관습이나 생활양식, 부모(시가 혹은 처가)를 대하는 행동 등과 관련된 영역이 부부간의 적용에 중요한 측면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나라 부부의 경우 부부 두사람만의 애정이나 만족감, 의견일치뿐 아니라 부부를 둘러싼 가족적, 문화적 맥락의 차이와 관련된 불화가 결혼적용도를 구성하는 한가지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와 같은 측면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셋째, 앞에서의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되어 분석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1차 요인 분석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높은 부하량을 보인 것이 어찌면 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DAS가 여러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적용도'라는 단일 구인을 평가하는 척도일 가능성이 있다. 단일 요인일 경우 임의로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해주고 분석할 경우 문항들이 임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어 미국과는 다른 요인 구조가 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연구로서 일차적인 목적이 Spanier(1976)가 제시한 하위척도 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anier(1976)의 4개 요인을 확인하고자 강제로 4개의 요인만을 추출해 본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로는 한국판 DAS가 Spanier(1976)가 제안한 이론적 구인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DAS의 요인구조가 미국의 그것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한편, Sharpley와 Cross(1982)의 연구에서도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Spanier(1976)가 처음 제시했던 4개의 요인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결혼적응도에 대한 Spanier(1976)의 가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결혼적응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단지 6개의 문항(문항 8, 10, 11, 25, 27, 28)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임상적인 장면에서는 32개의 문항을 전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Spanier(1976)의 요인구조와 우리나라에서의 요인구조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많은 표본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므로써 단일요인이건 다요인이건 안정된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상황에서의 결혼적응도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나아가서는 어떤 문항이 결정적인 문항인지를 변별해내는 연구도 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예비연구에서 검증한 한국판 DAS의 문항 내적일치도와 준거관련타당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에 대한 연구와 척도의 표준화가 완료되면 결혼적응과 관련된 연구분야 및 임상장면에서 본 척도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원래의 DAS를 구성하는 하위척도와는 다른 양상의 요인들이 추출되어 구인타당도를 적절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DAS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였을 뿐 아니라 원제작자의 이론적 관점과 각 하위 척도의 구성 등을 수정 없이 수용한 것이다. 외국

에서 개발된 척도를 빌려쓰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론적 문제로 인해 원제작자가 제안한 이론적 구인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단지 Spanier(1976) 척도의 타당성과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탐색해 본다는 의미를 지녔을 뿐이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작고 무선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일반화하는 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특정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옮겨 한국판 척도를 제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나라 부부의 결혼적응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구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인수. (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ernard, J. (1933). An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uccess in marriage. *Publications of 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27, 94-106.
- Burgess, E. W., & Cottrell, L., Jr. (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Philadelphia: J.B.Lippincott.
- Carey, M. P., Spector, I. P., Lantinga, L. J., & Krauss, D. J. (1993). Reliability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238-240.
- Lewis, R. A., Filsinger, E. E., Conger, R. A., & McAvoy, P. (1981). Love relationships among heroin-involved couples: Traditional self-report

-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E.E.Filsinger & R.A. Lewis (Eds.), *Assessing marriage: New behavioral approaches*. Beverly Hills, CA: Sage.
- Lively, E. (1969).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The case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108-114.
- Locke, H. J., & Wallace, K. M. (1959). Short marital 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 251-255.
- Margolin, G. (1978). Relationships among marital assessment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556-1558.
- Sharpley, C. F., & Cross, D. G. (1982).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panier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9-741.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anier, G. B. (1988). Assessing the strength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92-94.
- Spanier, G. B., & Cole, C. L. (1976). Toward cla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6, 121-146.
- Spanier, G. B., & Filsinger, E. E. (1983). The dyadic adjustment scale. In E.E. Filsinger (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Sage Pub. Inc.
- Spanier, G. B., & Thompson, L. A. (1982).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1-738.
- Terman, L. (1938).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 McGraw-Hill.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Min-Sik Lee

Zoung-Soul Kim

Div.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This preliminary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Dyadic Adjustment Scale(Spanier, 1976). For this, 136 adults(normal group=108, marital discord group=28) were selected and based on their responses,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was carried out.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Cronbach alpha) of each of subscales ranged from .76 to .95. Other statistical evidence was presented suggesting criterion-related validity. Overall, internal consistenc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good for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But in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original factor structures were not replicated. Several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